

‘전라감영’ 복원...조선왕조 500년 역사 되살아났다

6·25때 소실 선화당·관풍각·연신당 등 7개 건물 재건 전주 문화심장 자리매김...코로나 고려 추후 개방키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남과 전북,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이 70년 만에 위풍당당한 옛 모습을 되찾았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전주시는 지난 7일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에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최기영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감영 재장조 복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란한 꽃, 천년의 열매-전라감영’을 주제로 한 기념식은 1884년 전라감영을 다녀간 미국 대리공사 조지 클레이튼 포크(1856-1893)의 사진 속에 담긴 승전루(국가무형문화재 21호)와 전라감사 교대식 공원으로 시작했다. 이어 복원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환영사, 축사, 희망 보급 전달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부대행사로 전라감영을 지켜온 회화나무 씨앗과 전라감영 흙을 드론 3대에 매달아 동학농민혁명 발원지인 정읍·고창과 6·25 전쟁 피해지역인 남원과 전북의 새로운 미래인 새만금으로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라감영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복원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를 관할했던 전라감

영은 1951년 한국전쟁 중 폭발사고로 완전히 사라졌고, 이듬해 전북도청사가 지어졌다.

전라감영 이전 논의는 전북도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된 1996년부터 시작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2017년부터 총 104억원을 투입해 옛 전북도청사를 철거하고, 동쪽 부지에 선화당 및 관풍각, 연신당, 내아, 내아행랑, 외행랑 등 7개 핵심건물을 복원했다.

폭발사고로 사라진 전라감영이 약 70년 만에 전라도를 통치했던 옛 위용을 되찾은 것이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규모가 최소화됐으며,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는 전라감영 서쪽 부지 등에 대한 2단계 복원을 검토 중이며, 활용방안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복원된 전라감영은 애초 기념식을 기점으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개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 조선왕조 500년을 꽃피운 조선의 분할이자 전라도의 대표 도시”라며 “전라감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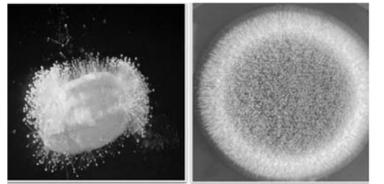
1951년 6·25전쟁 당시 불에 타 없어진 전라감영 건물이 복원돼 70여년 만에 개방됐다. /연합뉴스

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글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었을 것)’를 새긴 전라감영의 기념비는 전라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북인의 자존의식을 한층 드높일 것”이라고 축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라감영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공간으로 만들어 (전주)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음=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순창 곰팡이 산업화 성공 전통메주서 분리 ‘황국균’ 일본서 전량수입 대체 기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순창을 대표할 ‘제1호 황국곰팡이 균주’를 산업화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화에 성공한 곰팡이는 전통메주에서 분리한 황국균(Aspergillus oryzae SRCM 102021)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본 곰팡이보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당화력과 단백질 분해력이 우수하다.

또 향당도, 향고지질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플라톡신을 생성하지 않는 안전한 균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순창 대표 1호 황국균을 올 하반기부터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에서 장류 및 발효 식초용 종균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중국은 곡물을 이용한 발효주, 장류, 발효식초 등 발효식품을 제조하는데 이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개발한 곰팡이를 전통 발효식품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해외 미생물 사용에 따른 로열티 경제 손실이 향후 매년 5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업화 성공함에 따라 진흥원 곰팡이가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순창 대표 1호 황국균 산업화를 시작으로 2호, 3호 곰팡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진흥원은 순창 대표 1호 황국균이 발효식품 제조 기업에서 품질 문제 등의 우려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품질 모니터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 조택수 시인 두번째 시집 ‘내가 광대인 것을’ 출간



조택수 시인

정읍의 조택수 시인이 두번째 시집 ‘내가 광대인 것을 <사진>’을 출간했다.

『사정읍사문화제 제2회 위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 “예쁜 꽃을 보면 마음이 환해지듯이 글을 쓰면서 인생이 힘들 때도 있지만 흡수에 황금을 발견하듯 인생도 재발견한다”고 노래했다.

그는 ‘인생이 연극인 것’에서 자신이 광대인 것을 한참 후에 알았지만 인간의 삶이 본인 뜻대로만 살 수 없다고 간접적으로 말한다. 이 시집은 ‘싱거운 하루의 풍경화’, ‘노을’, ‘그림자’, ‘홀로 핀 그대여’, ‘눈 내리는 4·19 묘역’, ‘정토사’ 등 총 6부로 나눠 편찬됐다.

조 시인은 “앞으로도 시를 읽고 배우고 쓰는 시인으로 수필집과 시집을 내 독자와 공감할 수 있는 문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대체 ‘행복정원’ 조성

신흥근린공원 내 내일부터 개방 핑크몰리·국화로 힐링공간 마련

익산시는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취소된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대체해 ‘다리로움 익산 행복정원’을 조성해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익산 행복정원은 신흥근린공원 내에 핑크몰리와 국화로 조성돼 13일부터 개방된다.

중앙체육공원과 문화원 건너편 시유지를 연결해 산책할 수 있도록 핑크몰리, 국화 등 가을꽃 10만 여점과 국화 조형물, 각종 포토존 등을 설치해 힐링 공간을 조성했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익산시는 신흥근린공원 외에 유천생태습지, 배산체육공원, 익산역 등에 ‘다리로움 익산 국화전시 2020’ 공간을 조성하고 오는 20일 개장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국화조형물과 국화작품, 다양한 포토존을 도심 곳곳에서 감상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연출했다.

익산국화연구회원들의 작품 전시회는 익산역 서부주차장 연결 통로에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핑크몰리,



익산시가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대체해 신흥근린공원 내에 행복정원을 조성, 13일부터 개방한다. <익산시 제공>

형형색색 국화를 통해 잠시나마 시민들이 위로받고 가족·연인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방문객들은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농업 민원상담 ‘챗봇’ 도입 고창군, 첫 비대면 서비스

고창군은 실시간으로 농업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을 전북지역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이다.

이용자는 카카오톡에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채널을 친구 추가한 뒤 채팅창에 농업 민원사항을 문의하면 즉각적 답변이 제공된다.

배기영 고창군 농생명지원과장은 “대표적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활용한 ‘챗봇’을 통해 코로나19시대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경매 물건
<p>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p> <p style="text-align: center;">"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